

임종과정에서의 환자와 가족내면의 심리상태와 영성

대구경북지회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팀
글쓴이 최성은(호스피스팀장)

제목 “ 당신은 나의 최고의 선물이야.”

부제- 어느 잉꼬부부의 마지막 선물 -

나레이터 : 지난 4월경부터 몸에 황달이 와 병원을 찾게 된 김영자씨, 공장에서 열심히 야근을 하던 이십대 초반에 B형 간염이 발견되었지만 치료 후 지금까지 별 증상이 없어서 그동안 병원을 찾질 않았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랑하는 남자 이철수씨를 만나 결혼하고 잉꼬부부로 항상 밝고 즐겁게 살아온 오뚜기 인생, 김영자씨에게 간암이라는 진단은 너무나도 청천병력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 김영자씨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시키고, 백방으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구하여 먹여보기도 하였지만 간암이 이미 담도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담당의사는 이미 남편 철수씨에게 환자의 상태가 말기이며, 효과적인 증상치료를 위해 연고지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김영자씨는 담즙을 빼내는 관까지 몸에 넣고서야 집 가까이 선린병원으로 옮겨올 수 있었지요.

#1. 평안

장소 : 무지개 병동에 있는 환자의 병실

남편 : 여보, 좀 어때? 미식거리는 것은 좀 나아? 아프지는 않오?

환자 :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와서 돌봐주니까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애... 통증도 여기 와서 나아졌어. 별로 아픈 줄 모르겠어.

호스피스 목사: (똑똑 소리내어 노크를 한다.) 들어가도 될까요?

환자 : 예, 들어오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기도해 주세요.

호스피스 목사 : 물론이죠. 김영자님, 특별히 원하시는 기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환자 : 좋아요, 제가 여기와서 통증도 미식거리는 것도 다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언제 다시 또 통증이 오진 않을까 불안해요. 기도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그리고 우리 남편, 철수씨 피곤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호스피스 목사 :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환자와 남편과 목사님 함께 조용히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의 하나님, 김영자씨가 바라는 소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소서. 옆에서 돌보시는 남편 철수씨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병상에서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 아멘.

환자 : 목사님, 감사해요. 한결 마음이 평안해져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께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인사를 드린다.)

남편 : 감사합니다. 영자씨가 목사님 기도받으면 힘이 많이 난대요.

목사 : 저도 오늘 귀한 하루, 김영자씨와 이철수씨를 만나서 감사하고 힘이 나요.

그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환자 :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박목사님이 오시겠네요. 매일 기도를 받으니까 제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 :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병실을 나간다.

#2. 사랑 - 최고의 선물

남편 : 여보, 목이 마르지는 않아? 물 좀 떠올까?

환자 : 그래줄래요?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 고마워, 여보. 당신은 항상 나한테 친절해.... 참 착한 사람이야.

남편 : 새삼스럽게 그런 말은..... 당신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야...(손을 잡으며)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알지?

환자 : 그래, 알고 있고 말고...(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나밖에 모르는 착한 남자야..

근데... 너무 미안해. 내가 아파서 당신 고생시키고.... (약간 시무룩해지는 표정을 지으며) 당신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남편: 영자야! 그러지마, 웃어봐, 당신은 웃는 게 더 예쁘잖아....(양쪽 어깨를 잡으며 바라본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고 만다.) 호호, 영자야, 힘내자.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아무 것도 안해도 좋아. 당신이 그냥 이렇게 내 곁에 있어만 줘도 나는 행복해.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당신이야.

환자 : (눈물흘리며) 여보, 고마워. 그런 당신은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잘 아시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지... 늘 감탄하곤 했어....여보, 사랑해....

남편 : (아내를 꼭 안아주며) 그래, 나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환자 : 응응... 여보, 목말라... 물좀...

남편 : 얼른 물 떠 올께.

#3. 버팀목이 되어주기

남편 : (병동의 정수기에서 물병에 물을 받고 있다가 사회복지사를 보자 인사한다.) 오셨어요?

사회복지사: 예.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남편 : 뭔데요?

사회복지사 : 혹시 말씀을 드리셨는지....김영자씨의 상태에 대해서 김영자씨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하시던가요?

남편 :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영자에게 본인이 임종이 가깝다고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회복지사 : 호스피스팀 모두 김영자씨를 사랑하고 관심 있게 두 분을 지켜보며 도와드리려고 하니깐 금방 알지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남편 :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 : 영자씨가 자신의 임종에 대해 알면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실 수 있고, 인생을 마무리할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것입니다. 호스피스팀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데 저희 경험으로는 임

종을 알리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편인 철수씨가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느 쪽이든 철수 씨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편 : 평소 우리가 자녀가 없다보니, 둘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굳이 못한 말이 있을까도 싶고, 괜히 임종을 알렸다가 충격받을까 걱정도 되고, 평소 하고 싶은 말 다 했지 싶어서 알리지 않은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사회복지사 : 여자씨에게 임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오시면, 그 다음은 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씨가 충격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화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남편 : 예, 고마워요. 나 혼자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여러 선생님들 너무 고마워요. 환자가 몸이 안 아프고 평안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마음 깊은 곳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잘 생각해 보고 내일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중히 인사를 하고 물병을 들고 병실로 돌아간다.)

#4. 상담과 지지

다음날 오후, 이철수씨는 여자씨가 잠든 사이에 사회복지사의 상담실을 찾는다.

사회복지사 : 어서 오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요. 걱정이 많이 되셨죠?

남편: 예. 선생님, 어제 밤새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여자씨에게 말을 하는 것이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나라면.... 어느 편이 더 나올까?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사이에 임종이 임박한다면 더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좀 더 준비가 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요? 도와주세요....

사회복지사 : 예. 생각 잘 하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저렇게(중략) 하시면 됩니다.

남편 :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될까요?

사회복지사 : 저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을거라는 말을 듣는 여자씨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더 부자연스럽죠. 철수씨가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밖에서 기도할게요. 파이팅! 이 시간은 철수씨가 여자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요.

남편 : 예, 해 볼게요. 기도부탁해요. 내가 먼저 울면 안되는데...(인사하고 상담실을 나간다)

사회복지사 : (따라 나가며 철수씨에게 손으로 파이팅! 지지를 보내며) 환자 병실 밖에서 조용히 기도한다.)

#5. 마지막 선물

환자 : 여보!(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맞는다) 이제 들어와요? 나 잠깐 잠이 들었나봐.

남편 : 그래, 여보. 꼭 잤어? 기분은 좀 어때?

환자 : 응, 많이 좋아, 마음도 편하고... 여기 너무 좋다. 꼭 집에 있는 느낌이야. 당신도 그렇지?

남편 : 그래, 나도...병원에서 이런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곤 상상을 못했어.

환자 : 그러게 말야. 보기엔 비슷한 병원 같은데 속이 다른가봐... 무지개 병동이란 이름도 맘에 들고... 여보,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하나도 안 아프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꼭 붙어있고... 나 여왕이 된 거 같애....

남편 : 여자야, 여보야, 당신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 당신 소원말이야..

환자 : 나,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뭐가 있을까? 당신이랑 유럽 여행 가 봤으면 좋겠고, 백두산 천지에도 가 봤으면 좋겠고, 당신이랑 둘이서 아주 멀리 여행가서 오래오래 있다오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등산도 맘껏 하고... 교회가서 성가대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조카들이랑 스키도 타러가고....

남편 : 근데, 여보..... 이제 당신 그거 못한대.....(손을 잡아주며)

환자 : (말없이 잠깐 멈춘다) 왜?....

그럼, 이제 나 죽는 거야?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편 : (말없이 부인의 어깨를 감싸주며 꼬옥 안아준다) 여보.

환자 : 여보, 고마워. 당신한테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나 죽는다는 말을 내가 들어야 한다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당신한테 듣고 싶었어. 나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조금은 느끼고 있었어. 아니, 알고 있었어. 몸이 말해줘서. 근데 차마 당신한테 나 죽을 거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살잖아...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당신은 어떻게 해? 여보, 너무 미안해, 나 당신을 위해서 아기도 못 낳아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남아있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 당신은 나만 위해 주는데, 나는 당신을 다 위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야 하니.... 너무 미안해, 여보....

남편 : 아니야, 영자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내 사랑은 늘 부족했어. 당신, 늘 나를 최고로 대해 줬어. 그래서 나 아무도 부럽지 않았어. 자식이 없어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이 아기 낳느라 고생을 안해서 다행이었고, 당신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환자 : 여보, 그런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했어. 우리가 자식은 없었어도 그대신 우리 조카들 세 명을 얼마나 자식처럼 사랑했는지 당신 알지? 나 죽고 없더라도 조카들 사랑해주고, 끝까지 잘 해 줘. 그 애들이 당신한테 자식 노릇할거야. 그리고 나, 당신한테 선물하려고 보험을 몇 개 들었어. 내가 당신에게 자식 못 낳아주니 당신 노후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생활비 아껴서 반찬값, 차비 아껴서 당신을 위해 보험을 들었어. 집에 가면 안방 서랍 맨 아랫칸에 보험증서 3개랑 통장이 세 개 나올거야.... 그 통장은 얼마되지 않지만 당신이 필요할 때 선물하려고, 또 하나는 당신이랑 유럽여행 가려고, 하나는 백두산 같이 가려고 적금 들었는데 만기가 지나서 이자가 꽤 붙었을거야. 여보, 나 없더라도 너무 궁색하게 살지 말고, 옷 잘 빨아 입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나 하늘에서 화 낼거야. 내 말, 꼭 기억해....

나레이터 : 김영자씨는 남편과 한 시간이 넘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좋은 추억과 남편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과 유언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영자씨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고, 빈소를 찾은 호스피스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장례식을 마친 후 다시 무지개 병동을 찾아와 환자와 그 남편에게 “그 마지막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